

[다름]의 ‘틀리다’를 형성하는 유의-반의 관계망 분석*

신중진**

Abstract

Shin, Jung-Jin. 2018. 02. An Analysis of the process acting as a driver of the expansion of meanings in the synonym-antonym net: the meanings of ‘틀리다’ ranging from “be wrong” to “be different”. *Korean Linguistics* 78, 31~54. ...‘맞다(right)’, which is inversely related to ‘teullida’, has a synonymic relationship with ‘같다(same)’ depending on the sense. Naturally, the ‘같다’ is usually inversely related to ‘다르다(be different)’ as symmetry verb. The meaning of ‘다르다’ is ‘teullida’ and there is a close meaning relationship network in the network of words. In other words, the process acting as a driver of the expansion of meanings based on the antonym-relation of ①‘틀리다↔맞다’, and the synonym-relation of ②‘맞다 = 같다’ forms a network, and the relation between them and the opposite semantics is ③‘같다=맞다↔다르다’. And many of today’s speakers speak ④‘teullida’ of [difference]. Therefore,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synonymic analogy, eventually, the antonymic analogy is formed, and the word formed is ‘teullida’ of [difference]. This, of course, forms another type of enlargement of the meaning.

주제어: 유의어적 유추(synonymic analogy), 반의어적 유추(antonymic analogy), 사전(dictionary), 말뭉치(corpus), 대칭동사(symmetry verb)

1. 서론

일상 언어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있다. 말뭉치 언어학에서는 이들이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이기 때문에 ‘고빈도 어휘(high frequency lexicon)’라고 규정한다. 고빈도 어휘는 소위 기초 어휘이거나 기본 어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초 어휘 혹은 기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1937)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본 어휘는 쓰임이 활발한 때문인지 단의어로 존재하기보다는 다의어로 존재하기 쉽다.

그래서 다의어로 쓰이는 단어는 개별 단어들 간의 어의 차이보다는 적으나 어의 간에 의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전적 정의와는 달리 일상 언어생활에서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때가 많다. 즉 어떤 언어라도 하나의 단어는 오직 하나의 관념에 정확히 대응하지 않고, 한 관념이 몇 개의 유의어에 의하여 표현될 수 있는 것처럼 각 단어도 일반적으로 수 개의 어의를 지니고 있으나(이기문, 1955:21) 언어사용의 실상에서는 사전의 어깨번호나 다의 번호처럼 명쾌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단어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한 단어의 어의 차이가 다의어인지, 사실은 별개의 단어로서 동음이의어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다.

한편 실재하는 단어들은 대체로 자립적이지만 그렇다고 종이사전의 표제어들처럼 상대적으로 고립적인 것은 아니다. 적어도 심리어휘부(mental lexicon)에서는 품사 범주를 초월하여 단어들이 유관하게 얽혀 있다. 즉 무수한 어휘 관계망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단어이고 그 어의이다. 어휘 관계 중에서 대표되는 관계는 유의 관계, 반의 관계, 등위 관계, 포함 관계 등일 텐데, 치밀하게 그 관계를 들여다보면 단어들이 갖는 다의의 어의 관계끼리 촘촘히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예컨대, 동사 ‘벗다’는 ‘옷, 안경, 장갑, 혐의, 누명, 지게, 가방’ 등의 명사류들과도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그 어의와 용법에 따라서 동사류인 ‘입다, 쓰다, 끼다, 지다, 차다, 신다’ 등의 단어들과 반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입다, 쓰다, 끼다, 지다, 차다, 신다’와 같은 반의어 들끼리는 서로 대체할 수 없는 별개의 반어 관계망을 형성한다. 즉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어휘 간의 관계로 보이지만, 해당 어의나 용례 별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역시 단어 간의 관계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어의 간의 의미 관계망을 기본으로 하는 총체적인 어휘 관계임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단어 자체는 사상이나 관념의 정확한 전달을 적재적소에서 실현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단어는 사상이나 관념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덜 불완전한 도구일 뿐이다. 물론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이겠지만, 역시 단어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모어화자들은 단어의 어의가 확대되는 사례를 종종 보인다. 현대 국어 화자들이 어의 확대 과정을 자주 보이는 대표적인 예가 ‘틀리다’이다.¹⁾ 요즘은 ‘다른’ 것도 ‘다르지’ 않고 ‘틀린’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너와 나는 성격이 달라.”라는 표현이 “너와 나는 성격이 틀려.”로 표현되는 일이 있다. 그만큼 모어화자들이 자주 [다름]의 ‘틀리다’를 사용하고 있다(박병선, 2013:293-323). 그래서 이 글은 모어화자들에게 [다름]의 ‘틀리다’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과정을 사전 정보와 말뭉치의 실례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또 이때 유의어적 유추와 함께 반의어적 유추가 의미 관계망에 끊임없이 관여하면서 어의 확대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고자 한다.

2. ‘틀리다’의 사전적 의미 분석

국립국어원은 1999년도에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를 출간한 바가 있다. 그리고 최근까지 수정된 웹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인터넷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사전은 국가 기관이 편찬한 사전으로 규범 사전을 표방한다. 이 사전에 ‘틀리다’가 아래와 같은 조항(article)으로 나타난다.

1) 가령 학교문법이나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이 규범적인 관점에서 잘못으로 판단되는 예이다. 그러나 기술문법적인 관점에서는 어의 전이 혹은 어의 확대의 예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틀리다’의 이러한 사례를 더 이상 비표준적인 용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어의 확대가 이루어진 사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사전에서도 이제는 ‘~의 잘못’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틀리다’의 한 용법으로 기술하고 그 풍부한 용례를 출처와 함께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틀리다¹⁾

[틀리어[--어/--여](틀려), 틀리니]

[I] 『동사』

「1」【(…을)】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 답이 틀리다/계산이 틀리다/그 양반의 이야기에 어디 틀린 대목이 있습디까?《박태순,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아무리 좋은 기사가 실린 신문이라도 교정이 틀려 있다면 틀린 신문입니다.《이병주, 행복어 사전》 ॥ 대사를 하나도 안 틀리고 줄줄 외다/문제까지 알려 줬는데도 답을 틀리다니 이해할 수가 없구나.

「2」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다.

¶ 오늘 이 일을 마치기는 틀린 것 같다./그는 새벽 5시가 되자 잠자기는 다 틀렸다면서 라디오를 튼다./우리도 그이 얼굴을 한번 볼까 했더니 틀렸구먼.《송기숙, 녹두 장군》

「3」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올바르지 못하고 비틀어지다.

¶ 그는 인간이 틀렸어./그 사람은 외모는 출중한데 성격이 틀렸어.

[II] 『형용사』

→ 다르다^{1,3)}

【<틀이다<월석>】

이 사전은 ‘틀리다¹⁾’에 대해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⁴⁾ 먼저 동작 동사적 용법과 관련해서 3가지의 어의를 보여준다. 첫 번째 어의인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는 객관적인 혹은 구체적인 수치나 사실 관계가 맞지 않을 때 쓰이는 어의로서 ‘틀리다’의 핵심 어의로 판단된다. 편의상 이 어의를 [맞지 않음]으로 의미자질화한다. 두 번째 어의인 “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다.”는 희망하던 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 쓰이는 어의로서 다소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어의이나 앞의 첫 번째 어의에서 직접 파생된 어의로 판단된다. 편의상 이 어의를 [어려움]으로 의미자질화한다. 세 번째 어의인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올바르지

2) 뜻풀이 정보와 용례 정보를 중심으로 인용한다. 밑줄은 필자의 것.
 3) 종이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르다”의 잘못”으로 뜻풀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틀리다²⁾’는 동사 ‘틀다’의 피동사로 등재되어 있다.

못하고 비뚤어지다.”는 주로 사람에 대해 성품을 비난할 때 쓰이는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어의로 부정적 어감의 용법으로 판단된다. 편의상 이 어의를 [비뚤어짐]으로 의미자질화한다.

한편 이 사전은 특히 ‘틀리다’의 상태 동사적 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규범적으로 ‘다르다⁰¹’의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만큼 한국어 모어화자들이 이 용법의 ‘틀리다’를 자주 사용한다는 점을 사전이 반영하였다. 그리고 기술문법적으로는 엄연히 확대 어의를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전의 편찬 지침에 따라서 ‘잘못’의 용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예문은 볼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틀리다’의 상태 동사적 용법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다. 그 어의는 ‘다르다’와 유의관계를 이루므로 편의상 [다름]으로 의미자질화한다.

3. ‘틀리다’의 어의별 말뭉치 용례와 특징 파악

앞에서 우리는 사전적으로 정의된 ‘틀리다’의 어의를 확인하고 4가지로 분석하면서 의미자질로 제시해 보았다. 그에 따른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는 대체로 작성 예문이고 실제 작품의 인용 예문이 있기도 하지만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어의에 따라서는 용례를 확인할 수 없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현대 국어 말뭉치에서 ‘틀리다’의 어의별 용례를 더 찾아보고 거기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실제 예문을 통해서 검토하고 그 구문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도 파악해 보겠다. 이 글의 용례는 전적으로 <21세기 세종말뭉치>에서 검색된 것이다.⁵⁾

5)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800여 개의 예문이 추출되었다. 출처도 모두 확인되었지만, 일일이 따로 달지는 않았다. 말뭉치 자체가 공개된 말뭉치이고 여기서의 출처가 본 연구의 결과 도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번잡스러워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출처를 달기도 했다.

3.1. [맞지 않음]의 말뭉치 용례와 특징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맞지 않음]의 ‘틀리다’ 용례로 제시하고 있는 예문을 그 순서대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⁶⁾

- (1) ㄱ. 답이 틀리다
 ㄴ. 계산이 틀리다
 ㄷ. 그 양반의 이야기에 어디 틀린 대목이 있습니까?《박태순,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
 ㄹ. 아무리 좋은 기사가 실린 신문이라도 교정이 ①틀려 있다면 ② 틀린 신문입니다.《이병주, 행복어 사전》
 ㅁ. 대사를 하나도 안 틀리고 줄줄 외다
 ㅂ. 문제까지 알려 줬는데도 답을 틀리다니 이해할 수가 없구나.

(1ㄱ, ㄴ)은 작성 예문이다. 이들은 실제 언어생활에서도 [맞지 않음]의 ‘틀리다’가 보이는 전형적인 예문으로 판단된다. 말뭉치의 관련 예문을 치밀히 검토하면 (1ㄴ)은 아래의 (4ㄱ)처럼 “(구체적인 셈이 아니라) 미리 짐작한 바나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어의의 관용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둔다. (1ㄷ, ㄹ)은 작품의 인용 예문이다. (1ㄹ)의 인용 예문을 자세히 보면, ‘틀리다’의 용법이 두 번 확인되는데, ①의 ‘틀리다’와 ②의 ‘틀리다’는 그 어의가 다르다. ①의 ‘틀리다’는 [맞지 않음]의 어의지만, ②의 ‘틀리다’는 [비뿔어짐]의 어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버젓이 실려 있지만 이런 경우는 사전학적 관점에서 사전 용례로 적합하지 않다.⁷⁾ (1ㅁ, ㅂ)은 출처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작성 예문으로 판단된다. 부정법이 실현된 예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말뭉치의 용례 분석 결과, ‘틀리다’의 [맞지 않음] 어의를 직접 분

6) 밑줄과 원각 기호는 필자의 것.

7) 물론 하나의 인용 예문에 표제어가 두 번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도 사전학적으로 사전 이용자에게 선호되지 않는다.

석할 수 있는 예문이 있어서 우선 따로 제시한다.

- (2) 가. 이 경우, 그 결론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나. 이 명제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다.

(2)의 인용 예문을 통해 ‘틀리다’의 반의어 중에서 ‘맞다’가 반의 관계망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예문의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틀리다’와 ‘맞다’는 절대적 반의어 관계에 있다. 따라서 ‘틀리다’는 ‘맞지 않다’와 등가의 형식 논리가 성립하고, 따라서 ‘틀리다’는 [맞지 않음]의 어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어의의 인용 예문은 말뭉치에서 그 어떤 ‘틀리다’ 어의의 인용 예문보다 더 자주 추출된다. 그 대표적인 말뭉치 인용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 가. 쟁쟁 이름 좀 틀렸다고 그 사람 이마뼈기의 얼룩점이 어딜 가는 건 아니잖아!
 나. 그러니 현수 너는 노마를 대머리라고 부른 것이 틀린 표현이라는 걸 알겠니?
 다. 그런데 시간 문제가 아직 자신이 없어서 공책에 한 문제를 두 개나 틀렸다.
 라. 마지막 단어를 세 번 틀리고 나서 해석하려고 하자 그만하라는 말이 들려 왔다.
 마. 답이 정답이면 다음 학생은 또 다른 카드를 꺼내 풀되, 답이 틀렸으면 다음 학생이 다시 풀도록 한다.

(3)은 [맞지 않음]의 어의를 갖는 ‘틀리다’의 말뭉치 인용 예문들이다. (3가, 나)의 예문을 제외하면 문어체 문장이다. 적어도 말뭉치 자료상에서 해석해 보면 [맞지 않음]의 ‘틀리다’는 여타 어의의 ‘틀리다’보다 문어 상황에서 더 잘 쓰이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보면 ‘틀리다’의 여타 어의 즉 [어려움], [비똥어짐], [다름]은 구어

체 문장에서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앞으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맞지 않음]의 ‘틀리다’는 주된 용법이라서 그런지 관용 표현을 이루는 경우의 예문이 여타의 어의의 ‘틀리다’보다 더 많이 보인다.

- (4) ㄱ. 나는 내 질문이 그녀를 지나 남자에게 가서 꽃힐 거라고 계산했고, 내 계산은 틀리지 않았다.
 ㄴ. 혹 그 맛있는 누룽지를 여성들이 독차지했다는 사실에 분개할 사람이 있다면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ㄷ. 믿기 어렵지만 재미있는 폴이임엔 틀림이 없다.
 ㄹ. 형용이 옛 같지가 않고 맨상투바람이었으나 맹가가 틀림이 없었다.

(4ㄱ, ㄴ)은 ‘X{이/가/은/는} 틀리다’의 구성으로 관형구를 이루는 경우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용 표현 정보에 이러한 관용구를 부표제어로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그 관용성이 확인되는 바이다. (4ㄱ)은 축자적인 어의의 용법으로도 사용되지만 “(구체적인 셈이 아니라) 미리 짐작한 바나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의 관용 어의도 파악된다. (4ㄴ)도 역시 축자적인 어의의 용법도 있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이 경우 축자적인 용법보다 “어떤 일에 들어맞지 않거나 엉뚱한 데를 잘못 짚다.”라는 관용 어의로 더 잘 쓰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반영되어 표제어 ‘번지수’에서 관용구로 부표제어화되어 있다. (4ㄷ, ㄹ)은 ‘틀림+이 없다’ 구문으로 나타나며, 말뭉치에서 고빈도 연어 구성으로 출현한다.

3.2. [어려움]의 말뭉치 용례와 특징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려움]의 ‘틀리다’ 용례로 제시하고 있는 예문을 그 순서대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 (5) 가. 오늘 이 일을 마치기는 틀린 것 같다.
 나. 그는 새벽 5시가 되자 잠자기는 다 틀렸다면서 라디오를 듣다.
 다. 우리도 그이 얼굴을 한번 볼까 했더니 틀렸구면.《송기숙, 녹두장군》

(5가, 나)은 작성 예문이다. 그리고 (5다)은 실제 작품의 인용 예문이다. 이 예문들에서 보이는 ‘틀리다’의 어의는 ‘맞다’와 반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맞지 않다’로 대체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틀리다’의 주요 어의인 [맞지 않음]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어의 [어려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

‘틀리다’의 어의인 [어려움]의 용법을 치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말뭉치의 용례를 추출해 보았다. 여기서는 그 분석 결과로 ‘틀리다’의 [어려움] 어의를 직접 분석하고 특징적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예문을 따로 제시한다.

- (6) 가. 잘살기는 틀렸으니 재미있게나 살자.
 나. 술 마시기는 틀렸다고 그는 생각했다.
 다. 거, 살긴 틀렸나 부!
 라. 신고하면 장사하기는 틀린다는 것을 아는 서산댁이고 보면 공개적으로 신고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마. 그러나 여차피 틀린 일로 보인다.
 바. 병원에 가두 틀렸어.
 사.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게 먹고 갔으면 싶었지만 역시 틀린 일이었다.

(6)은 모두 [어려움]의 어의를 보여주는 ‘틀리다’의 예문들이다. [어려움]의 ‘틀리다’는 다른 어의일 때와는 달리 (6가~라)처럼 주로 “~기 틀리다” 구문으로 실현된다. 통사론적 구문을 기반으로 의미론적 어의 분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6마, 바, 사)은 표면적으로는 “~기 틀리다” 구문에서 예외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층적으로는 각각 ‘~기’ 어절이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6ㄱ)에서는 “~(이루어지기/해결되기) 틀린 일로 보인다.”, (6ㄴ)에서는 “병원에 가두 (살기/회복되기는) 틀렸어.”, (6ㄷ)에서는 “~(눈에 띄지 않기) 틀린 일이었다.”에서 ‘~기’ 어절이 생략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아래에서 다른 관점의 예문에서도 확인된다.

[어려움]의 ‘틀리다’는 충칭성 부사나 부정극어와 함께 쓰이는 예문이 자주 보인다. 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7) ㄱ. 예잇, 오늘부터 편한 잠 자기는 다 틀렸다.
 ㄴ. 만일 지금까지 그대로 그 골방에 남아 있었다면 도망치긴 다 틀렸지.
 ㄷ. 너 바람 쐬기는 영 틀린 거지?
 ㄹ. 나는 어린 생각에도 내가 영 글러서 망쪼가 들지언정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라나기는 틀린 일인 것을 알고 있었다.
 ㅁ. 게다가 나는 워낙 수줍어하고 열등감에 잠겨 있었으므로 결코 정상적인 인간이 되기는 틀렸다고 체념하게 만들어놓고 있었다.

충칭적 문장의 성격을 갖는 예문에서 [어려움]의 ‘틀리다’가 여타 어의의 ‘틀리다’보다 잘 쓰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7)의 인용 예문들이 그러하다. (7ㄱ, ㄴ)은 충칭성 부사 ‘다’와 함께 실현되면서 ‘틀리다’의 [어려움] 용법을 보인다. 그리고 (7ㄷ, ㄹ)도 역시 “전혀 또는 도무지”의 충칭성 부정극어와 함께 실현되면서 ‘틀리다’의 [어려움] 용법을 보인다. (7ㅁ)도 충칭성 부정극어인 ‘결코’와 함께 실현되면서 마찬가지로 용법을 갖는다.

[어려움]의 ‘틀리다’에서 흥미로운 구문적 특징은 시간 표현 부사나 부사구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 인용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8) ㄱ. 그렇담 애저녁에 틀린 혼담이었다.
 ㄴ. 느들 존재 시집가긴 아저녁에 틀렸어야.
 ㄷ. 팔자 순탄하기는 ‘초저녁’에 틀린 여자일 거야….

- ㄹ. 신애야, 안됐다, 너는 저렇게 괜찮은 아이와 초저녁부터 틀렸으니.
- ㅁ. 게다가 나는 일찍 잠이 들기는 이미 틀렸다는 기분이 들고 있었다.

(8ㄱ, ㄴ)은 “애초”의 뜻으로 ‘애저녁에’와 함께 [어려움]의 ‘틀리다’가 실현된 문장이고, (8ㄷ, ㄹ)도 역시 “애초/일의 시초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서 ‘초저녁{에/부터}’와 함께 [어려움]의 ‘틀리다’가 실현된 문장이다. (8ㅁ)도 “애초”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이미’라는 시간 부사와 함께 [어려움]의 ‘틀리다’ 용법을 보이고 있다. 특히 (8ㄱ~ㄹ)에서 ‘애저녁{에/부터}, 초저녁{에/부터} 틀리다’는 거의 관용 표현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려움]의 ‘틀리다’는 특정한 보조용언과 통합하는 경향을 확실히 보인다. 그 인용 예문을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9) ㄱ. 에이, 다 틀려 버렸어요!
 ㄴ. 그런데 이젠 다 틀려 버렸잖아요.
 ㄷ. 오늘도 계곡에서 목욕을 하려던 계획이 틀려 버렸다.
 ㄹ. 그러나 이제 그런 날벼락 같은 명령을 받기도 틀려 버렸다.

(9ㄱ, ㄴ)는 충칭성 부사인 ‘다’와 함께 ‘틀리다’가 통합하면서 [어려움]의 어의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후행하는 보조용언 ‘버리다’까지 통합하면서 그 어의가 더 두드러진다. (9ㄷ, ㄹ)은 충칭성 부사와 호응하는 바는 없으나 잠재적으로 충칭성 부사와 어울릴 수 있고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틀리다’와 통합하는 보조용언 ‘버리다’를 통해서 [어려움]의 어의가 드러난다. 물론 표면구조에서도 심층구조에서도 ‘-기’가 구문 상에서 확인되는 바이기도 하다.

3.3. [비똥어짐]의 말뭉치 용례와 특징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비똥어짐]의 ‘틀리다’ 용례로 제시된 예

문을 그 순서대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 (10) ㄱ. 그는 인간이 틀렸어.
 ㄴ. 그 사람은 외모는 출중한데 성격이 틀렸어.

(10)은 작성 예문으로 ‘틀리다’가 동일한 활용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반말체의 종결어미인 ‘-어’와 통합한 ‘틀리다’의 예문들이다. 우선 이 사전의 예문은 현대의 사전학에서 추구하는 좋은 사례라고는 볼 수 없다. 적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비똥어짐]의 ‘틀리다’의 예문 중에서 하나는 다른 예문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비똥어짐] 어의의 ‘틀리다’ 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뭉치의 용례를 검토해 보았다. 물론 말뭉치에서는 [비똥어짐]의 ‘틀리다’ 용법이 적잖이 확인된다. ‘틀리다’의 어의인 [비똥어짐]을 직접 분석하고 특징적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 예문을 제시하면 (11)과 같다.

- (11) ㄱ. 혼전의 성교는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
 ㄴ. 내가 너를 이겼다면, 과연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것인가?
 ㄷ. 기존 견해는 무조건 틀렸고, 그 반대의 것만이 옳다는 주장이 강하게 지배되어 왔다.
 ㄹ. 그러다 보면 나쁜 놈이 착한 사람을 오히려 홍보고, 또 틀린 놈이 옳은 사람을 도리어 틀렸다고 할 수가 있겠어.

(11)의 인용 예문을 통해 ‘틀리다’의 반의어 중에서 ‘옳다’를 확인할 수 있다. 예문의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틀리다’와 ‘옳다’는 절대적 반의어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때의 ‘틀리다’는 ‘옳지 않다’와 등가의 형식 논리가 성립하고, 따라서 ‘틀리다’는 [비똥어짐]의 어의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비똥어짐]의 ‘틀리다’의 자연스러운 용법을 보이는 실제 인용 예문들은 말뭉치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그 전형적인 예문을 보이면 (12, 13)과 같다.

(12) ㄱ. 사실 경우가 틀렸다.

ㄴ. 절집 인심마저 틀려졌다면, 누워 침 뱉는 격이 되겠으나.

ㄷ. 자네는 너무 고린내가 나서 틀렸데..... 허허허허.

ㄹ. 남원출생 기생의 딸이 사투리를 쓰고 기분이 틀릴 땐 욕설도 퍼붓는 게 당연하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

(12)에 보이는 예문들은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의 예문과 합치되는 어의를 보이는 실제 인용 예문들이다. 그러나 많은 예문이 ‘틀리다’의 [맞지 않음]과 [비틀어짐] 사이에서 구별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13) ㄱ. 제 말이 틀렸나요?

ㄴ. 우리들의 요구 조건은 틀렸소!

ㄷ. 저희들은 이미 모든 게 틀렸구나 생각했습니다.

ㄹ. 어때? 내 말 틀렸어? 참으로 넌 한심한 놈이로구나!

ㅁ. 3·1운동은 비폭력만세시위의 방법부터가 틀렸다고 본다.

ㅂ. 우리 애의 머리는 우수한데 역시 지도방법이 틀려 먹었지요? 이런 투였다.

(13)의 예문들에서 ‘틀리다’의 [어려움]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바이지만, 사실 ‘틀리다’의 주요 어의인 [맞지 않음]과는 구별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구별을 위해서는 해당 예문의 전후 문맥이나 상황맥락이 그 어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사실 관계(맞다/맞지 않다)보다는 평가 관계(옳다/옳지 않다)로 파악되는 경우에 ‘틀리다’의 [비틀어짐] 어의로 파악한다.

3.4. [다름]의 말뭉치 용례와 특징

《표준국어대사전》에 [다름]의 ‘틀리다’에 대한 용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의 잘못’에 해당하는 표제어의 용례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기로 한 사전 지침을 따른 결과이다. 아래의 인용 예문은 말뭉치를

검색하면서 도출한 것이다.

- (14) ㄱ. 묘지하고 묘석이 틀린 것입니다.
 ㄴ. 아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틀리당께.
 ㄷ. 저와 아버지는 성격이 엄청나게 틀려요.
 ㄹ. 정숙(靜肅)주의의 극장 분위기와는 사뭇 틀린다.
 ㅁ. 울음이 여느 때와 틀릴 때는 전신을 훑어보는 습관을 가진다.
 ㅂ. 말이 순리와 틀리게 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4)는 [다름]의 ‘틀리다’의 전형적인 예문들이다. [다름]의 대칭동사적인 의미 속성 때문에 해당 구문들은 ‘A{와/과/하고/랑} B{이/가/은/는} 틀리다’ 혹은 ‘A{이/가/은/는} B{와/과/하고/랑} 틀리다’ 구문으로 나타난다. 특히 (14ㄱ, ㄴ)은 구어 문장에서는 공동격 조사 ‘하고’와 함께 쓰이는 ‘틀리다’의 예문이다.

표면구조에서는 ‘A{와/과/하고/랑} B{이/가/은/는} 틀리다’ 혹은 ‘A{이/가/은/는} B{와/과/하고/랑} 틀리다’ 구문을 띠지 않지만 [다름]의 ‘틀리다’ 용법을 보이는 예문들이 말뭉치에서 존재한다.

- (15) ㄱ. 아버지, 색이 틀리잖아요?
 ㄴ. 통반만 틀린 곳으로 이사를 했다.
 ㄷ. 이처럼 시대가 달라지면 필수품의 목록도 틀리게 마련이다.
 ㄹ. 한번은 여기 물을 끓여 먹다가 이웃집에서 생수를 쥐서 먹었는데 영 물맛이 틀리더라고요.

(15)는 [다름]의 ‘틀리다’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구문의 특성인 공동격 조사의 실현 없이 나타난 예문들이다. 하지만 심층구조에서 파악하면 모두 대칭동사로서 모두 공동격 조사구의 설정이 필수적이며, 표면화되면서 공동격 조사구가 생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15)의 각각에서는 심층구조에서 보면 ‘(A색과 B)색이 틀리다’, ‘(동은 같고) 통반만 (이전 집과) 틀리다’, ‘필수품의 목록도 (이전 시대와)

틀리다’, ‘물맛이 (끓인물과) 틀리다’ 구문에서 생략이 일어난 결과의 예문들이다.

한편 심층구조에서조차도 ‘A{와/과/하고/랑} B{이/가/은/는} 틀리다’ 혹은 ‘A{이/가/은/는} B{와/과/하고/랑} 틀리다’ 구문을 띠지 않지만 [다름]의 ‘틀리다’ 용법을 보이는 예문들도 존재한다.

- (16) 여덟 명의 유치장 근무 경찰관들은 제각기 성격이 틀리므로 유치장 분위기가 근무자가 교대될 때마다 바뀌게 된다.

(16)은 [다름]의 ‘틀리다’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구문의 특성인 공동격 조사가 표면구조에서도 심층구조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예문들이다. 그러나 비교 대상을 상정할 수 있는 부사나 보조사가 쓰이면서 [다름]의 ‘틀리다’ 용법을 찾을 수 있다. (16)에서는 ‘제각기’라는 부사가 둘 이상의 대상을 상정하게 해주는바, (16)에서 [다름]의 ‘틀리다’를 분석할 수 있다.

[다름]의 ‘틀리다’는 출현빈도가 주요 의미의 ‘틀리다’만큼 높이 나타나고 또 현대국어 화자들의 구어상황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인지 관용 표현으로까지 그 용법이 확대된 예문도 확인된다.

- (17) ㄱ. 약속이 틀리잖아요.
 ㄴ. 배운 사람이라 역시 틀리구만.
 ㄷ. 예나 지금이나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대답이었다.

(17)의 ‘틀리다’는 [다름]의 어의이지만, 이 글에서는 관용 표현으로 파악한다. (17ㄱ)의 ‘약속이 틀리다’는 “약속을 깨다/어기다”의 어의를 갖는 관용구이고, (17ㄴ)의 ‘배운 사람이라서 틀리다’는 “(해당하는 사람) 격이 있다/경우가 있다”의 어의를 갖는 관용구이며, (17ㄷ)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다’는 “정확하다”의 어의를 갖는 관용구로 부정법에 기대어 굳어져서 쓰이고 있다.

4. ‘틀리다’의 다의 [다름/異]를 형성하는 유의-반의 관계망 분석

우리는 앞에서 말뭉치 검색을 통해 언어생활에서는 ‘틀리다’가 어문규범과는 별개로 ‘다르다’와 유의어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 ‘틀리다’가 어떤 이유로 [다름]을 획득하여 ‘다르다’와 유의어 관계를 형성하면서 현대국어 화자들이 오늘날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틀리다’와 반의 관계에 있는 ‘맞다’의 사전 정보를 제시한다.

맞다01

「동사」

[1]

「1」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

¶ 네 답이 맞는다./과연 그 답이 맞는지는 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2」 말, 육감, 사실 따위가 틀림이 없다.

¶ 엄마는 항상 맞는 말씀만 하신다./옛날 속담이 맞는 경우가 아직도 꽤 많다./내 육감은 잘 맞는 편이다./이 책은 역사적 사실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앞 사람의 말에 동의하는 데 쓰여))‘그렇다’ 또는 ‘옳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다시 생각해 보니 네 말이 맞는다./맞아, 나도 그렇게 할 거야.

[2] 【…이】

「1」 어떤 대상이 누구의 소유임이 틀림이 없다.

¶ 이것도 네 것이 맞니?/이 안경이 바로 아까 그 학생 것이 맞을 것이다.

「2」 어떤 대상의 내용, 정체 따위의 무엇임이 틀림이 없다.

¶ 우리 집 전화번호가 방금 말씀하신 번호가 맞습니다./내가 너에게 준 돈이 액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아라./네가 바로 그 학생 맞지?

[3] 【…에/에게】

「1」 어떤 대상의 맛, 온도, 습도 따위가 적당하다.

¶ 음식 맛이 내 입에 맞는다./실내 온도가 화초의 특성에 맞지 않으면

화초가 잘 자라지 않는다./이 정도 습도이면 아이들에게 딱 맞을 것이다.

「2」 크기, 규격 따위가 다른 것의 크기, 규격 따위와 어울리다.

¶ 반지가 손가락에 맞다/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치수가 내 몸에 맞는 것이 없어서 사지 못했다.

[4] 【(…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1」 어떤 행동, 의견, 상황 따위가 다른 것과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같거나 어울리다.

¶ 만일 내 동작이 다른 사람들과 맞지 않으면 관중이 웃을 것이다./나의 의견이 그의 생각과 맞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그 두 나라는 이해관계가 잘 맞는 분야에 한해서 협력하기로 했다./모든 부부가 생활 방식이 꼭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2」 【…에/에게】 모습, 분위기, 취향 따위가 다른 것에 잘 어울리다.

¶ 그것은 나의 분위기와는 절대로 맞지 않는다. ∥ 외모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아무래도 그 두 사람이 가장 잘 맞아 보인다. ∥ 그녀는 아무리 보아도 내게 잘 맞는 것 같다./거기는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곳인 것 같다.

【맞다<석상>】

위의 사전적 정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뜻풀이 정보와 용례 정보를 중심으로 인용한 것이다. [1]의 「1, 2, 3」과 [2]의 「1, 2」를 통해서 ‘맞다’가 ‘틀리다’와 [±맞지 않음]을 중심으로 반의 관계에 있음을 직접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1]의 「3」을 통해서 ‘틀리다’와 ‘맞다’가 앞에서 기술한 ‘옳거나 옳지 않음’에 따른 [±비뿔어짐]에서도 반의 관계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맞다’의 뜻풀이 정보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4]의 「1」이다. 그 용례를 재인용하여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8) 가. 만일 내 동작이 다른 사람들과 맞지 않으면 관중이 웃을 것이다.
 나. 나의 의견이 그의 생각과 맞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 그 두 나라는 이해관계가 잘 맞는 분야에 한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ㄹ. 모든 부부가 생활 방식이 꼭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8') ㄱ. 만일 내 동작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면 관중이 웃을 것이다.

ㄴ. 나의 의견이 그의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ㄷ. 그 두 나라는 이해관계가 (꼭/완전히²⁷잘) 같은 분야에 한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ㄹ. 모든 부부가 생활 방식이 꼭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8)의 밑줄 친 ‘맞다’는 [4]의 ‘1」의 뜻풀이에서 보이는 ‘같다’와 대치해도 (18')과 같이 대체로 무방하거나 굉장히 자연스럽다.⁸⁾ 이는 ‘틀리다’와 반의 관계에 있는 ‘맞다’가 어의에 따라서는 ‘같다’와 유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당연히 ‘같다’는 ‘다르다’와 통상적으로 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다르다’는 ‘틀리다’와 어의 관계망 속에서 가깝고도 공고한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는 셈이다.

이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같다’의 사전 조항(article)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같다

「형용사」

[1] 【(…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이다. ≍여하다.

¶ 나는 그와 키가 같다./내 나이는 그의 나이와 같다./나는 그와 같은 동네에 산다. || 우리는 고향이 서로 같다./철수네 식구는 모두 혈액형이 같다./우리는 같은 학교에 다닌다.

8) (18ㄷ)과 (18' ㄷ)의 대응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해당 예문의 ‘맞다’가 동작 동사성을 띠기 때문에 대응하는 ‘같다’의 상태 동사성과 범주 상의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가 두 문장의 대응이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어휘 간에도 언어 현실에서 완전 동의가 불가능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2] 【…과】 ((‘…과’ 성분은 주로 ‘과’가 생략된 단독형으로 쓰인다))

「1」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것과 다르지 않다.

¶ 백옥 같은 피부/양 귀비 같은 얼굴/꿈속 같다/마음이 비단 같다./하는 짓이 굼벵이 같다.

「2」 ((‘같은’ 꼴로 체언 뒤에 쓰여))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 신희여행은 으레 제주도나 설악산 같은 곳에 가야 한다는 고정 관념이 있다./우리 선생님 같은 분은 세상에 또 없을 거야./여행을 할 때엔 반드시 신분증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

특히 [1]의 용례에 주목하는바, 재인용하여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 ㄱ. 나는 그와 키가 같다.

ㄴ. 내 나이는 그의 나이와 같다.

ㄷ. 나는 그와 같은 동네에 산다.

ㄹ. 우리는 고향이 서로 같다.

ㅁ. 철수네 식구는 모두 혈액형이 같다.

ㅂ. 우리는 같은 학교에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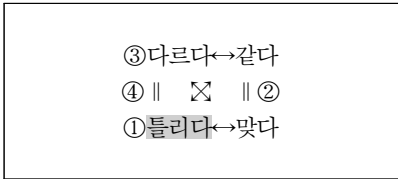
(19)의 ‘같다’는 ‘맞다’의 [4]의 어의에 준하는바, 구문에 따라서는 개별 어휘의 특성상 어색하거나 비문이 되기도 하지만 (19ㄱ, ㄴ, ㄹ, ㅁ)의 ‘같다’는 ‘맞다’와 대치해도 무방하거나 자연스러운 편이다. 교차분석의 차원에서 ‘맞다01’ [4]의 「1」에 제시된 용례들인 (18)의 ‘맞다’는 (18’)에서 확인했듯이, ‘같다’로 대체 가능하다. (19ㄷ, ㅂ)처럼 관형사형 어미와 통합한 경우에는 다소 어색하거나 비문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세부 품사의 차이와 완전 동의 불가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격 조사와 함께 실현된 ‘같다’ 구문은 ‘맞다’와 함께 유의 관계가 확실히 성립한다. 즉 “그는 나와 성격이 맞다=그는 나와 성격이 같다”와 같은 유의 구문이 모어화자들에게 자연스럽다. 물론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은 이런 반의와 유의의 관계망 속에서 ‘틀

리다↔맞다=같다↔다르다’의 어의 관계망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한다.

다시 말하면 ‘틀리다↔맞다’의 반의 관계를 기반으로 ‘맞다=같다’의 유의 관계가 연결망을 형성하고, 이들과 반의의 어의인 “같지 않다=맞지 않다”가 성립하면서 ‘틀리다=다르다’ 관계가 획득되면서 오늘날 많은 모어화자들이 “다르다”의 ‘틀리다’를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 말뭉치 분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추론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 (20) ㄱ. 최근에는 다르다고 해야 옳을 것 같은 곳에 틀리다를 쓰는 일이 드물지 않다.(금용 97년 3월호)
 ㄴ. 씨가 같아도 배가 틀리면 그런다더라.
 ㄷ. 어쩜 손톱만큼도 안 틀리고 똑같았습니다.
 ㄹ. 그 때 지리산 기슭이 아니라 지금은 강원도 광덕산 기슭이어서 장소는 틀리지만 그 정서와 기분은 마냥 같았다.

(20ㄱ)은 ‘틀리다’의 [다름] 어의가 자주 쓰이고 있는 실태를 1997년의 한 잡지에서 밝히고 있다. (20ㄴ~ㄹ)은 한 문장 속에서 ‘틀리다’가 ‘같다’와 반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쓰이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인용 예문이다. 이처럼 [다름]의 ‘틀리다’는 어휘의 다양한 어의 관계망 속에서 ‘같다’와 반의를 형성하고 ‘같다’와 공고하게 반의 관계를 형성하던 ‘다르다’와 다시 유의의 어의 관계망이 연결되면서 그 용법을 획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관계망을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다름]의 ‘틀리다’가 형성하는 유의-반의 관계망>

따라서 유의어적 유추(이승녕, 2011:428) 적용 후에 결국에는 반의어적 유추 작용까지 일어나면서 형성된 것이 ‘다르다’의 “틀리다”인 것이다. 심재기(1975:136)에 따르면 연상(聯想)에서 반의어가 나타나는 비율이 전체 연상의 2할에 해당한다는 보고를 제시한 바가 있다. 즉 반의어는 언어 사용에서 끊임없이 해당 반의어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겠다. 즉 유의어적 유추에 이끌린 ‘맞다=같다’는 언어 사용에서 반의어인 ‘틀리다’의 어의에 끊임없이 간섭하는데 이차적으로 의미 관계망을 형성하는 ‘같다↔다르다’의 반의어적 유추도 ‘틀리다’의 어의 형성에 간섭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틀리다’와 ‘다르다’는 유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틀리다’의 어의에 “다르다[異]”가 형성된다. 이것은 어의가 확대되는 또 다른 한 유형이다.

5. 결론

현대국어 화자들이 자주 [다름]의 ‘틀리다’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다름]의 ‘틀리다’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모어화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과정을 말뭉치의 실례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밝히되, 유의어적 유추와 반의어적 유추가 의미 관계망에 끊임없이 관여하면서 어의 확대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이 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정보를 바탕으로 편의상 ‘틀리다’를 [맞지 않음], [어려움], [비뚤어짐], [다름]으로 의미자질화하였다. 그리고 이 어의에 따라서 말뭉치의 용례와 특징을 파악하였다. 우선 [맞지 않음]의 ‘틀리다’는 사전적 의미정보로나 말뭉치의 용례로나 핵심의미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적어도 말뭉치 상에서 해석해 보면 [맞지 않음]의 ‘틀리다’는 여타 어의의 ‘틀리다’보다 문어 상황에서 더 잘 쓰이는 경향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보면 ‘틀리다’의 여타 어의 즉 [어려

움], [비뚤어짐], [다름]은 상대적으로 구어체 문장에서 더 잘 나타나
는 경향도 있었다. 핵심 용법이라서 그런지 관용 표현을 이루는 경우
의 예문이 여타의 어의의 ‘틀리다’보다 더 많다.

[어려움]의 ‘틀리다’는 주로 “~기 틀리다” 구문으로 실현된다는 사
실을 밝혔다. 통사론적 구문을 기반으로 의미론적 어의 분화가 일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또 [어려움]의 ‘틀리다’는 충칭
성 부사나 부정구어와 함께 쓰이는 예문이 자주 보인다. [어려움]의
‘틀리다’에서 흥미로운 구문적 특징은 시간 표현 부사나 부사구와 함
께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다. [어려움]의 ‘틀리다’는 특정한 보조용
언과 통합하는 경향이 확실히 보인다.

말뭉치에서는 [비뚤어짐]의 ‘틀리다’ 용법이 적잖이 확인되었다.
[비뚤어짐]의 ‘틀리다’ 반의어 중에서 ‘옳다’를 확인할 수 있었다. ‘틀
리다’와 ‘옳다’는 절대적 반의어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때의 ‘틀리
다’는 ‘옳지 않다’와 등가의 형식 논리가 성립하고, 따라서 ‘틀리다’는
[비뚤어짐]의 어의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름]의 ‘틀리다’에 대한 용례는 제시되
어 있지 않다. 말뭉치를 통해서 [다름]의 ‘틀리다’의 전형적인 예문들
을 검토한 결과, [다름]의 대칭동사적 속성 때문에 ‘A{와/과/하고/랑}
B{이/가/은/는} 틀리다’ 혹은 ‘A{이/가/은/는} B{와/과/하고/랑} 틀리
다’ 구문을 띠면서 나타난다. 표면구조에서는 공동격조사를 취하지
않지만 [다름]의 ‘틀리다’ 용법을 보이는 예문들이 존재하였다. 하지
만 심층구조에서 파악하면 모두 공동격 조사구의 설정이 필수적이었
다. 한편 심층구조에서조차도 공동격조사 구문을 띠지 않지만 [다름]
의 ‘틀리다’ 용법을 보이는 예문들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비교 대상을
상정할 수 있는 부사(제각기, 각자, 각각, 서로 등)나 보조사가 쓰이면
서 [다름]의 ‘틀리다’ 용법을 찾을 수 있었다. [다름]의 ‘틀리다’도 관
용 표현으로까지 용법이 확대된 예문도 확인되었다. 그만큼 ‘틀리다’
의 [다름] 어의는 확고하다.

결국 ‘틀리다’와 반의 관계에 있는 ‘맞다’가 어의에 따라서는 ‘같다’와 유의 관계를 형성한다. 당연히 ‘같다’는 ‘다르다’와 전형적으로 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다르다’는 ‘틀리다’와 의미 관계망 속에서 가깝고도 공고한 관계를 형성하고 여기서 ‘다르다’에 이끌려 상태성을 갖는 [다름]의 ‘틀리다’가 형성된다. 즉 ①‘틀리다↔맞다’의 반의 관계를 기반으로 ②‘맞다=같다’의 유의 관계가 연결망을 형성하고, 이들과 반의 관계인 ③‘같다/맞다↔다르다’가 성립하면서 이에 이끌리어 ④‘틀리다=다르다’ 관계가 획득되었다. 따라서 유의어적 유추 적용 후에 결국에는 반의어적 유추 작용까지 일어나면서 형성된 것이 [다름]의 ‘틀리다’이다. 이것은 어의 확대의 또 다른 한 유형을 형성함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 김광해. 1987. “국어 유의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적 연구.”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61. 183-199.
- 김광해. 1990. “어휘소간의 의미 관계에 대한 재검토.” 『국어학』 (국어학회) 20. 28-46.
- 박병선. 2013. “‘틀리다’ 의미 오용(誤用)의 언어학적 제(諸)고찰.” 『어문학 연구』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4. 293-323.
- 신중진. 2004. “통시사전 기술 방향 연구-유의관계에 있는 ‘기르다/양육하다/치다/키우다’를 통해서.” 『한국사전학』 (한국사전학회) 4. 245-278.
- 신중진. 2010.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한 효율적인 사전 기술법을 찾아서.” 『최명옥 선생 정년 퇴임 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897-815.
- 신중진-엄태경. 2015. “증보판 《조선말 대사전》(2006)의 동족어 부류에 대한 고찰.” 『국어학』 (국어학회) 74. 143-174.
- 심재기. 1975. “반의어의 존재양상.” 『국어학』 (국어학회) 3. 135-149.
- 이기문 역. 1955. 『言語學原論』 (Philosophie du Langage, par ALBERT DAUZAT, 1929). 서울: 民衆現代叢書.
- 이승녕. 1970/2011. “國語의 Synonymy의 研究.” 『心岳李崇寧全集』 9. 415-435.

임홍빈. 1999. 『한국어사전』 서울: SISA Education.

C. Fellbaum. 1998. *WORDNET-An Electronic Lexical Database*, The MIT Press.

R. R. K. Hartmann and Gregory James. 1998. *Dictionary of Lexicography*, Routledge.

Tony McEnery and Andrew Wilson. 1996. *Corpus Linguistics*, Edinburgh University Press.

신증진 (Shin, Jung-Jin)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2-2220-0737

전송: 02-2220-0730

전자우편: languetopia@hanyang.ac.kr

원고접수일: 2017. 12. 22.

심사완료일: 2018. 01. 19.

게재결정일: 2018. 01. 25.